大韓帝國期 釜山 北港
埋築関連 資料의 內容과 性格

차 철 옥
(부산대 한국민속문화연구소)

차 례

I. 머리말
II. 외무성외교사료관 소장『釜山海岸埋立工事ノ一件』
III. 동경경제대학 소장『釜山埋築會社』
IV. 맺음말
1. 머리말

부산 북항 매축은 1902년부터 1905년, 1907년부터 1908년까지 차례로 걸쳐 진행된 부산 근대화 사업이었다. 매축지는 철도시설, 항만시설 뿐만 아니라 우체국, 각종 회사, 도로망, 전차 등이 등장하였 다. 이런 점에서 부산 북항 매축은 부산 근대화에서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외형적인 매축의 기능을 이해하기에 앞서 두 가지 점에서 매축이 지닌 순기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일본의 대륙진출에 따른 필요성이다. 1905년 경부선 개통과 관부연락선 취항, 양곡강 철교와 안대선 완공 등으로 일본과 대륙을 연결하는 항만시설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매축지에는 1910년부터 부산역사, 세관, 간교 등 철도와 항만시설이 갖추어졌다. 결국 부산 북항 매축은 일본과 대륙을 연결하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다른 하나는 개항 후 급증하는 거류지 일본인들의 새로운 생활공간 확보였다. 산과 바다로 통제되었던 전군대의 토양이란 근대적인 도시로서 탈바꿈하기 위해 인근의 초량, 부산법인 확대되어야 했다. 부산 북항 매축은 조선인 마을과 일본인 거류지를 연결하는 도로망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였다.

이처럼 부산 북항 매축은 일본인의 생활공간 확대와 일본의 대륙접근이라는 역할 때문에 일찍부터 연구가 진행되었다. 1) 하지만 초기

---

1) 기존 연구에서 제2기 북항매축의 종료시점을 1909년으로 정리하고 있으나 본 논문은 1908년 8월 31일의 초량 『釜山報』(17)에 따르면 2기 공사 종료는 1908년 8월 31일이다.
연구는 자료발굴에 한계가 있었다. 최근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면서 메축된 허가의 경위를 새롭게 조망한 연구가 있다. ③ 하지만 여전히 북향 메축과 관련한 좀 더 세밀한 자료발굴이 요구되고 있다.

본고는 일본 외무성의 교사료관에서 소장하고 있는『釜山海岸埋立工事ノ一件』과 동경경제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는『釜山埋築会社』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전자는 주로 메축된 허가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 외무대신, 서울에 상주하던 林權助公使, 부산의 영사 등 3명의 교환한 문서와 電文이다. 후자는 일본의 대표적인 재벌인 大倉組八郎이 조직한 회사인 부산메축회사가 동경으로 보낸 문서이다. 주요 내용은 1908년 메축이 완공된 이후 메축지 처리와 관련이다.

이로 자료를 통해 부산 북향 메축이 부산의 균대화뿐만 아니라, 거주지 일본인, 일본 정부, 메축회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II. 외무성외교사료관 소장
『釜山海岸埋立工事ノ一件』

이 자료는 1899년부터 1910년 사이 한국 서울의 林權助 공사, 부산 영사, 일본 외무대신 등이 부산 북향메축과 관련해 주고 받은 공문 서 혹은 電文이다. 부산 북향메축에 일본 외무성이 많은 관심을 가

2) 金容植,『釜山의 築港話』《港都釜山》2, 1963.
지로 범죄기 확보과정에 직접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는 외무성사료관에서 발간한 《外交史料館所蔵》(1992)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문서는『釜山海岸埋立工事ノ一件』이라는 제목으로 보관되어 있다. 이 문서는 직접 전달된 간첩문서와電文이 중심이다. 機密文書는 주로 부산의 영사와 서울의 林公使가 외무성 외무대신에게 보낸 문서이다. 외무대신은 주로 電文으로 한국의 두 외무성 외교관에게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이 문서를 간접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機密 제66호 (1899년 11월 25일) (부산 영사 能勢辰五郎→외무대신 青木周蔵)『釜山海岸埋立工事ニ関スル件』
(2) 機密 제78호 (1899년 12월 13일) (부산 영사 能勢辰五郎→外務大臣)
(3) 電文 제14호 (1900년 2월 8일) (外務大臣→林公使)
(4) 電文 제36호 (1900년 3월 5일) (外務大臣→林公使)
(5) 電受 제85호 (1900년 3월 6일) (林公使→外務大臣)
(6) 電受 제90호 (1900년 3월 11일) (林公使→外務大臣)
(7) 電受 제97호 (1900년 3월 14일) (林公使→外務大臣)
(8) 機密 제15호 (1900년 3월 14일) (林公使→外務大臣)『釜山港埋立ニ關スル件』
(9) 機密電 제18호 (1900년 4월 2일) (外務大臣→林公使)
(10) 機密 제32호 (1900년 5월 4일) (林公使→外務大臣)
(11) 機密 제40호 (1910년 5월 5일) (부산 영사 能勢辰五郎→外務大

4) 본 자료의 발원은 일본 동경대학에서 윤학 중인 諸原延重의 협조가 절대적이었다. 저번을 빌어 감사드리다.
(12) 電送 壱54号(1900年6月18日)(外務大臣→林公使)
(13) 電送 壱254号(1900年6月19日)(林公使→外務大臣)
(14) 電送 壱58号(1900年6月20日)(外務大臣→林公使)
(15) 電送 壱251号(1900年6月21日)(林公使→外務大臣)
(16) 機密 壱51号(1900年6月30日)(林公使→外務大臣)「釜山埋立ノ件」
(17) 機密送 壱35号(1900年7月13日)(外務大臣→林公使)
(18) 電送 壱216号(1900年7月31日)(外務大臣→林公使)
(19) 電送 壱351号(1900年8月1日)(林公使→外務大臣)
(20) 機密 壱62号(1900年8月13日)(奉使 陸軍 能勢辰五郎→外務大臣)
(21) 機密 壱82号(1900年11月1日)(奉使 陸軍 能勢辰五郎→外務大臣)
(22) 機密送 壱64号(1900年11月20日)(外務大臣→林公使)
(23) 機密送 壱46号(1900年11月27日)(外務大臣 青木周蔵→奉使 陸軍 能勢辰五郎)
(24) 機密 壱116号(1900年12月6日)(林公使→外務大臣)「釜山港埋立ノ件」
(25) 機密 壱119号(1900年12月11日)(林公使→外務大臣 加藤高明)
(26) 機密送 壱72号(1900年12月28日)(外務大臣→林公使)
(27) 電送 壱5号(1901年1月14日)(林公使→外務大臣 加藤高明)
(28) 機密 壱2号(1902年2月8日)(林公使→外務大臣 加藤高明)
(29) 電送 壱182号(1902年6月18日)(林公使→小村外務大臣)
(30) 電送 壱129号(1902年6月21日)(小村外務大臣→奉使 陸軍)
(31) 公 壱89号(1902年7月5日)(奉使 陸軍 小村外務大臣)
「釜山港前埋立ニ関スル件」
위 문서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매죽권 획득과정, 둘째, 매죽지를 거류지 내로 편입하는 문제, 셋째, 한국정부가 매죽지를 다시 편입하는 문제 등이다. 이들 요소에 대해 각 문서 별로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를 검토해보자.

먼저, 고島義恭, 佐藤銘象 등이 부산 북항 매죽권을 획득하는 과정과 관련한 문서를 검토해보자. 매죽권 획득에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미 부산 북항에 매죽권을 획득하고 있던 거류지회와의 관계였다. 자료(1)는 부산의 영사가 거류지회의 분위기를 일본외무대신에게 보내는 문서이다. 부산 영사는 1889년 당시 고島義恭 등이 이 지역 매죽권 획득에 참여하자, 거류지회는 이미 북항 앞 6천여평에 대한 매죽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중동할 가능성을
이 있어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외무대신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서에는 중요한 사실 및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즉 거류지회는 1891년 동래감리로부터 이미 북향 매축권을 획득했으나, 자본 부족과 갑오농민전쟁 등 정치적 사건으로 연기했다. 그리고 경부철도부설권을 누가 획득하는지 관심이 많았다. 만약 일본인이 획득한다면 거류지 앞으로 경부선을 끌어 들일 수 있어 거류지 발전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거류지회 총대 佐原純이 북향 매축을 거류지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영산에 보고하고 있는 문서를 참조하고 있다.

북향 매축은 이미 거류지회 뿐만 아니라 경부철도주식회사 발기인들도 철도용 부지를 위해 계획하고 있었다. 여기에 高島義崇 등이 영리를 내세워 접근한 거류지회에서 반대하였다. 거류지회는 이들 이 매축지를 비싸게 매각해 경부철도가 기점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을까 두려워 하였다. 만약 그렇게 되면 거류지회는 경부선 기점의 이동에 따라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거류지회는 이들의 사업에 반대하고 경부철도회사와 매축을 협의하기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부산 영산에 보냈다. 자료 (2)에서 는 부산 영산가 철도부지 매축권을 高島義崇 등에게 줄 수 있도록 경부철도주식회사 발기인들과 협의하도록 일본 외무대신에게 요구하고 있다. 즉 경부철도 부지가 북향 앞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거류지회의 협상을 순조롭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高島義崇 등은 1900년 2월 부산 거류지회와 경부철도와의 관계는 해결하지 않은 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외무대신과 서울의 林公使 사이에 왜란한 문서가 (3)(4)(5)(6)(7)이다. 외무대신은 林公使에게 高島義崇이 제출한 문서를 한국정부에 제출하도록 지시
하고, 한국정부의 분위기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林公使는 신청서 제출 후 매축권 획득을 위해 활동한다. 그 과정에서 매축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과 관련한 요구서를 의무대신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고島義恭 등이 매축권을 획득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정리한 자료가 (8)이다.

자료 (8)은林公使가 고島義恭 등이 매축권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조건을 정리한 것이다. 신청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 4가지 즉 한국정부와의 관계, 외국과의 관계, 부산거류지와의 관계, 경부철도 회사와의 관계 등이다.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공신력을 지닐 수 있는 자본의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부철도와 협의해서 그 명의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외국과의 관계에서는 이미 매축자가 일본인 거류지로 전입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조계로 일본 거류지와 별도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들과의 협상도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 거류지와 관계는 기존 거류민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배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용미산 아래 있던 세관이나 매축지에 결정된 경부선 정차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반면 신청인들은 새로운 매축지에 선박계류장과 화물 양륙장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면서, 화물과 선박출입에 편리하도록 세관 또한 이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거류민들의 입장에서는 기존 세관이 용미산 아래 위치함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 즉 화물 수송에도 편리할 뿐 아니라 세관 주변의 각종 수출입 관련 시설이 집중해 있어 이곳에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된다. 그리고 경부선 정차장 문제도 거류민에게는 경제적으로 중요하였는데, 만약 완성한 매축지의 가격이 높아, 경부철도회사가 경제적인 부담을 가진다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다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거류지화가 손해이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거류
지회와 관련해 중요해 경부철도 회사와 협의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林公使는 최종적으로 부산의 경제시설을 바꾸지 않도록 할 것, 외국
인들에게 일정한 이익을 줄 것, 거류지에 대해 기득권에 해당하는 6
천평은 물론 도로용 부지를 제공할 것, 경부철도용지를 염가로 매각
할 것 등을 제안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高島義恭 등에게 연락해
줄 것을 외무대신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무대신과 林公使, 부산 영사는 각각 신청인들과 접촉
해 경부철도주식회사, 거류지회와 협상할 필요도 있음을 말하고 있다. 자료
(9)는 외무대신이 경부철도주식회사 발기인과 신청인의 교섭이 진행
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10)에서는 양자의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
지 않으면 거류지회의 반발 때문에 충돌이 있을 것이므로 양자의 협
의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자료 (11)에서는 부산 영
사가 거류지회의 요구, 즉 거류지회의 기득권에 해당하는 6천평을
실비로 거류지에 양여하는 내용을 외무대신이 지원해 줄 것을 요구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정부와 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는
(11)(12)인데, 한국정부의 매도권 결정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12) 자료에서는 한국 정부가 경부철도 외에 매도를 허가하
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후 신청
인들과 경부철도회사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로 논의가 전개된다.
자료 (14)(15)(16)은 철도회사와 매각인 사이의 협상 이유와 협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자료 (17)에서 협상이 타결될 것임을 알리고
있다. 그리고 (18)에서 양자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졌고, 高島義恭 등
이 회사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알리고 있다. 이에 대해 (19)에서는
서울의 林公使과 高島義恭등이 한국으로 올 때 경부철도주식회사
발기인의 위임장을 가저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자료에는 高島義

- 232 -
고의 외무성에 제출한 경부철도주식회사 발기인과의 계약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이후 고시로 조선으로 건너와 서울로 가서 매도권 획득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 부산에서 부산 거주지회와 협상을 다루되한다. 타결의 내용은 자료 (20)으로 부산 영사가 외무대신에게 보고 하고 있다. 이 자료에는 부산거주지회가 보유하고 있던 매축에정지 6청을 평당 12엔으로 거주지에 인도할 것과 이에 대응해 거주지회에서는 매축에 필요한 토지를 복합산과 적기에서 조달할 수 있게 서로 협상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신청인은 경부철도주식회사, 거주지회와 협상을 마무리 짓고 한국정부를 상대로 매축권 획득에 노력한다.
다음으로 매축자가 조성될 경우 이곳이 거주지 내로 편입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한 문제였다. 신청인은 매축지에 항만시설은 물론이고 철도를 이전해 매축지의 가치를 높여 문화 가격을 높이려고 계획하였다. 반면 거주지에서는 매축자가 거주지 내로 편입되지 않기 때문에 응용사 아예 있던 세관을 이곳으로 이전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어 반대하였다. 이 문제는 거주지회가 매축 자체를 반대할 가능성이까지 지니고 있어 일본 외무성으로서는 사물리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그래서 부산의 일본 영사나 외무성은 매축지를 거주지 내로 편입시키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문제 해결을 최고사에 요청한다. 자료 (21)은 이러한 정황을 부산 영사가 외무성에 보고하는 내용이다. 매축자가 거주지 내로 편입되지 않고 각국 조례대로 활용될 경우 부산에 거주하던 일본인이 많은 이권을 잃는다는 점이다. 이 문서는 매축지를 독립거주지로 조성할 경우 초래할 문제점 즉 경제, 행정, 경찰 등의 여러 점에서 논란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에게 매축지를 개방할 경우 일본 거주자가 첨예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천의 예를 통해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부산 영사는 매죽지를 거류지로 편입시키고, 이곳을 보유하고 싶다는 내용을 林公使와 일본 외무대신에게 통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 외무대신은 자료 (22)에서 林公使에게 공문을 보내 매죽지를 일본 거류지로 편입시킬 것과 세관을 이전하지 말고 그대로 두 것을 요구하는 교섭을 한국정부와 하도록 지시하였다. (23) 자료로도 부산 영사에게 동일한 내용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24)로 林公使가 외무대신의 의견을 동의하면서 한국정부와 교섭하고 있다고 전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의 요구대로 한국정부에서 수용하지 않자 (26)에서 처럼 외무대신은 강경한 어조로 유갑의 뜻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결국 자료(28)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902년까지도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다만 매죽지 가운데 거류지 앞 부분만 편입되고, 나머지는 거류지 외로 취급하는 데 동의하게 된다.

이처럼 일본 외무성의 외무대신, 서울의 林公使, 부산의 能勢 영사 등의 노력과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 결과 高島義恭 등은 1900년 12월 8일 매죽권을 취득하였다. 하지만 매죽권은 한국정부의 수정요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에 관련한 자료가 (25)이다. 이 자료에서 수정 내용은 매죽 완료 후 한국정부가 ‘買還 買還(되 사들임)’하는 부분이다. 당시 외무대신 朴齊純과 일본공사 林權助 사이에 왕래한 공문이 첨부되어 있다. 한국정부의 買還은 매죽 회사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문제였다. 買還에 대해 일본 정부에서는 세관을 비롯한 공공시설 부지만을 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정부는 이 외의 모든 매죽지를 실비로 되살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은 한국정부와 접촉했지만 그다지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와 관련한 자료가 (27)이다. 일본 林公使와 조선 朴齊純 외무대신 사이에 왕래한 공문이 첨부되어 있다. 협상 결과 일본 외무성에서는 공공시설로...
설 이외의 매주지를 대상으로 하는 구경을 없앨 수는 없고, 실비에
다소의 이자를 추가해 되 사도록 요구하였고, 이것이 한국정부에 의
해 받아들여졌다.

매주권을 확보한 고노노야스노 등은 투자자를 찾지 못해 회사 설립은
물론 기공을 하지 못했다. 부산의 거류지회나 일본 외무성도 비난하
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매주회사가 설립되고, 공사 추진계획이 세
워지는데 이와 관련한 자료가 (29)부터 (36)까지이다. 林公使가 부산
매주 기공 기간이 1902년 8월 7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기
공을 해야 한다고 매주인들에게 주지시켜 줄 것을 외무신에서 통
지하였다(29). 이에 외무신은 자료 (30)을 부산 영사에게 보내 투자
자로 大倉喜八郎과 협의가 끝났고, 자본금 25만엔의 회사를 설립하
고, 공사는 제1기와 2기로 나누어 시작할 것이라고 전달하였다. 이후
매주회사는 매주 공정과 가격, 매주 방식 등을 결정하고(31), 부산매
주상회사를 설립해 입원을 신출하고, 공사에 착수하였다. 1902년 7
월 29일 기공식이 있었고(32) 이 사실은 일본 외무신을 통해 서울의
林公使를 거쳐 한국정부에 전달되었다(34, 35, 36).

매주시설과 함께 매주지의 설계 문제와 관련해, 매주지구 내 운하를
건설할 것인가를 논의하기도 하고(37), 매주 설계서를 제출하였다.(38)
자료 (39)는 위 내용과 거리가 있는데, 1906년 제2기 매주공사가
중지되었다가, 다시 통감부에서 매주를 진행해 줄 것을 일본 외무신
에게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 자료에서는 제2기 매주구역을 선박
계류장과 화물 하양장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5) 1906년 10월 제2기 공사 직전 부산상업회의소는 제1기 매주지역 내를 선박 계류
시설로 만들기 위해 한국정부 탐지부에 매주공사 중지를 요청하였다. 탐지부는
이를 수용해 매주권을 취소하였으나, 이를 대신할 적합한 대상물건이 없었던 점,
회사가 한국 정부에 모비를 진행한 점 등으로 1907년 원래 계획보다 축소되기
는 했지만 제2기 공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매죽구역 축소로 매죽이익이 축소될 가능성이 때문에 매죽회사가 매죽권을 한국정부에 반납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이 문서는 高島義恭, 佐藤潤洋 등이 한국정부로부터 매죽권을 확보하는 과정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특히 일본 외무성이 한국정부와 접촉은 물론이고, 매죽권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부산 거지지회, 경부철도주식회사와 접촉해 매죽권 확보에 앞장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시 취급된 내용은 매죽지를 거지지 내로 편입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 이 문제는 거지지 일본인들의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익에도 중요한 문제이어서 예민하게 취급하고 있다. 다음은 한국정부가 매죽지를 되사는(買還) 문제이다. 이 문제는 매죽 절비로 한국정부가 모든 매죽지를 다시 매입한다면 매죽 회사의 이익이 줄어들 것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었다.

Ⅲ. 동경경제대학 소장『釜山埋築會社』

이 자료는 부산 북항매죽을 진행한 大倉喜八郎이 설립한 동경경제대학에 소장되어 있고, 1981년 『東京經濟大學所蔵大倉財閥資料目錄』 별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부산의 연구자들은 아무도 이 자료에 관심을 가지고 않았다. 이 자료가 세상에 공개될 수 있었던 것은 1974년부터 시작된 동경경제대학 경제사 연구자들 중심으로 조직된 ‘大倉財閥研究会’의 노력 덕분이었다. 이들은 대장 재벌과 관련된 기업체를 방문하면서 자료를 담론하여 大倉商事, 中央建物株式會社, 大成建設株式會社 등 大倉財閥의 계열사에 남아있던 자료를 수집했다. 이 가운데 1923년 관동대로진으로 많은 자료가
소실되었고, 大倉商事만 지진의 피해가 없어 그 이전의 자료가 보존될 수 있었다. 보존 자료 가운데 일부가 이 회사의 해외투자분야 자료였고, 소량이 조선부분이다. 조선 관련 자료 가운데 많은 부분이 부산항 해역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는 대부분 부산해역주식회사가 일본 농업번째 보낸 보고서, 「釜山埋築ファイル」(1922-1937년), 「土地耕地名簿」(1922-1935년), 「地勢畝簿」(1923-1935년) 등이다. 이 가운데 이전에는 「釜山埋築会社」(1-4)만 소개하기로 한다. 이외는 동경경제대학의 사정으로 자료를 발굴하지 못했다.

동경경제대학 도서관 大倉文庫에 보존되어 있는 「釜山埋築会社」 관련 자료는 양이 적지 않아. 자료의 대부분은 1908년 매출 준공후 내용이다. 자료는 매출지 시공방법, 매출지 도로 시공방법 등 기술적인 내용이 많다. 이 가운데 매출지 처리문제가 북항 매출연구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해 정리하였다.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支 520호(1906년 10월 22일)(佐藤潤(→)
(2) 支 534호(1906년 12월 11일)(佐藤潤(→)「埋築地買買報告」
(3) 支 542호(1907년 2월 14일)(佐藤潤(→)「埋築地買買報告」
(4) 支 545호(1907년 2월 25일)(佐藤潤(→)
(5) 支 679호(1908년 5월)(資進人 佐藤潤, 購受人 喜光(→)
(6) 支 700호(1908년 6월 28일)(釜山埋築株式會社)「埋築地年賦

6) 中村青志, 『東京経済大学所蔵大倉財団資料目録』, 東京経済大学研究室, 1981.
7) 本資料의 발굴에는 동경경제대학 村上勝彦학長과 橋谷 弘 교수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저명을 밝혀 감사드린다.
(7) 支 제765호(1909년 1월 27일)(佐藤潤象→高島義勲)「埋築地利用ノ条約ニ付具申」
(8) 支 제725호(1908년 9월 17일)(佐藤潤象→高島義勲)
(9) 支 제757호(1908년 12월 23일)(佐藤潤象→高島義勲)「採取跡整理工事支出ノ件」
(10) 支 제790호(1909년 5월 1일)(佐藤潤象→大倉喜八郎)「伏兵山土取場跡整理工事補助費請求」
(11) 支 제798호(1909년 7월 5일)(佐藤潤象→高島義勲)
(12) 土肥 제731-6호(1909년 5월 26일)(부산거류민단장→부산매죽주식회사)「伏兵山土取場跡整理工事竣工ノ認」
(13) 支 제357호(1905년 8월 1일)(佐藤潤象→大倉喜八郎)
(14) 地税免除議(1913년 4월 4일)(부산매죽주식회사→조선총독 寺内正毅)
(15) 支 제519호(1906년 10월 20일)(佐藤潤象→大倉喜八郎)
(16) 第二期埋築工事差止ヨリ特許ヲ得タル額未略記
(17) 支 제742호(1908년 11월 17일)(佐藤潤象→高島義勲)「第賛期工事竣工届ノ件」
(18) 支 제839호(1909년 9월 9일)「埋築地附屬附近軍隊上陸地ノ条約ニ付内申」
(19) 韓国釜山港北濱海面埋築地資運內金貨下方願(1904년 9月 1日)(부산매죽주식회사→경부철도주식회사)
(20) 本 제134호(1905년 3월 25日)(부산매죽주식회사→경부철도주식회사 고시공위)
(21) 京釜鉄道会社ノ引渡地代価調(1905년 5월 31日)(부산매죽주식회사→경부철도주식회사)
1905년 1차 배축공사가 완료된 후 1906년부터 배축지 매매가 진행되었다. 배축회사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자료 (1) (2) (3) (4) (5)는 배축지 매매 상황을 보고하는 내용이다. (1)은 福永政英, (2)는 阿野政次郎, (3)은 坂田文吉, (4)는 郵船會社에 매각해 대금을 영수했다는 내용이다. (5)은 鳥戶義松과 매매계약을 했다는 내용이고, 여기에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들은 당시 부산 경제계에서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던 인물들이었으며, 배축지를 그들의 영업감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하였다. 하지만 개인이 매입하는 토지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북향 배축 제2기 공사는 1907년 4월 1일 기공해 1908년 8월 31일 준공되었다. 하지만 공공시설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이 외 민간에게 분양할 토지는 배축지 준공 당시 경기체제와 점차 제대로 분양되지 않았다. 이 당시 배축회사에서 제안하는 분양 대책이 1908년 시작된 《年賦法》였다. 이 방법과 관련된 자료는 (6)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장기 7년으로 나누어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인데, 계약 때 토지 대금의 10분의 3을 지불하고, 매년 10분의 1을 년 2회로 지불하는 방 법이다. 구매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분양을 활성화하려는 회사의 의도였다. 이 자료에는 배축지의 각 토별로 평수와 각 토지별 최소, 최대 평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地価 또한 1등지 100-120엔, 2등 지 70-90엔, 3등지 55-70엔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年賦法》으로도 당시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자 임대가을을 건설해 집을 받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7) 자료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경기 점차의 요인을 급용불만 때문이 라는 사실도 언급하고 있다.

배축지가 제대로 매매되지 않자 자료 (7)처럼 임대가을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부지를 대여하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 석

- 239 -
탄, 목재, 선탄 등 야작장 사시설이나, 노점상들이 매출지에 대거 등장하였다. 그러나 무질서한 입대는 오히려 매출회사의 입장에서는 관리를 번거롭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대여를 금지하였다. 하지만 자료 (8)에서는 부산 무역상연합회가 운영하는 곡물상회처럼 보유 자산이 많은 업자들에게 대여하자는 제도가 있었다. 이 계획이 실행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 문서에는 곡물상회를 운영하는 무역상들이 부산의 유력자들이기 때문에 매출지 대여하지 않을 경우 서로 갑질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매출지를 대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매출공사 준공 후 부산매출주식회사와 거류민단 8) 사이에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었다.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매출지 간선도로 문제였다. 원래 매출 시작 당시 계획된 간선도로는 8간이었으나, 매출 준공 후 거류민단은 부산항의 확대에 따라 12간이 필요해 추가되어야 할 토지를 매출회사에 요구하였다. 여기에 매출회사는 반대했고, 계속되는 양자의 갈등으로 거류민단은 매출 당시 무상 제공을 약속했던 매출용 금전 채취에 대한 보상과 토석 채취지역인 복병산 정비도 요구하였다. 이에 대응하는 매출회사의 문서가 (9)(10)(11)(12)이다. (9)는 복병산 토석 채취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문서이다. 이 자료에는 매출과 직접 관련한 자료는 아니지만 복병산 토석 채취로 그곳에 있던 묘지이전과 관련해 별도의 문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12)는 복병산 토석 채취장 복구비용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정리작업이 완료되었다는 보고 내용이다. 그리고 (11)은 토석 채취대금 지불과 관련한 자료인데, 민단에서 요구한 대금은 3만평에

8) 거류민단은 1965년 기류민단법에 의해 조직된 일본인 자치조직이다. 거류민단과 구분해 그 이전은 거류자회로 불리웠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거류민단과 거류자회를 구분해 사용하였다.
대한 4,500원 가운데 2,250원을 차용했다는 보고 내용이다. 이들 자료 뒤에는 「埋築用土石採取ノ義務ニ付御願」(1900년 8월 13일)을 제공해 매축전 거류민단이 토석 무상 체취를 허용한다는 문서를 첨부하고 있다.

이러한 양식의 갈등은 복병산 토석 체취 비용 요구에만 머물지 않았다. 나아가 거류민단에서는 매축회사에 세금 납부를 요구하였다. 자료(13)(14)는 매축지 조정문제와 관련된다. 남세를 요구하자 회사에서는 1905년 당시 부산 영가가 규정한 남세원칙을 중지로 제시하여 남세를 거부하였다. (13)은 1905년 1차 매축 완료 후 남세징결을 부산 영가가 매축회사에 전달한 내용이다. 회사는 이를 근거로 남세를 거부하고 의견서를 거류민단에 제시했다. 의견서는 (13)을 근거로 가옥을 건설하지 않은 매축지에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이었다. 그러자 거류민단은 그동안 매축회사에 제공하였던 각종 특혜를 폐기하면서 과세에 적극성을 보였다. 한편 매축회사는 자료(14)를 수입 총독에게 제출해 면세를 요구하였다. 이 자료에서 회사는 면세의 논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부산 북항매축으로 철도부설이 가능해졌고, 부산 내 교통망을 편리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 대륙을 연결하게 했다고 먼저 공로를 내세웠다. 그리고 매축권 확보와 정에서도 많은 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획득했고, 많은 공사비가 투입되었으나 경부철도, 거류민단, 세관 등 공공사업에 아주 낮은 가격으로 부지를 제공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간 매각이 부진해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주주들에게 한반도 배당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채가 늘어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적용되는 매축지 30년 면세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세금문제는 회사의 요구대로

9) 당시 부산영가인 有吉瀧が 매축회사에 보낸 문서인데, 매축자는 거류민단의 납부여 거류지 규정에 따라 과금을 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이 자료를 통해 회사의 경영방법의 한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 이익을 위해 일본 정부의 공적성을 내세우고 있다.

제1차 메추는 1902년 7월 말 기공해 1905년 2월 준공검사를 받았 다. 제2차 공사를 1906년 10월 시작하여 브룸 부산상업회의소는 조선정부 탁자부에 메추 증지를 요청하였다. 이유는 2차 메추지 떼 지역 내부를 전략 전략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부산 경 제인들의 입장에서는 수출입을 위해 이러한 시설이 아주 필요했으나, 메추회사의 입장에서는 메추지가 축소되어 그 만큼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 중요한 문제였다. 이와 관련한 문제를 서울의 회사 임원 들에게 보고하는 자료가 (15)와 (16)이다. (15)에서는 상엽회의소 건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즉 "영리회사 기득권 대상으로 한국정부가 현금 50만엔을 지출해 메추회사에 대여하고 메추회사는 제2기 예정 3년의 1을 '내셔널'으로 메추해 이를 제공하고 나머지 3년의 2는 전부 체납으로서 사용하기 위해 회사의 메추 권리를 파격한다. 메추회사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권리 부여를 희망한다"는 내용이다. 자료 (16)에서는 당시 조선어사관의 공사 중지 내용, 이 문제를 정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메추회사 임원들의 활동,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메추권 파기에 따른 대상 물자를 조사하는 과정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사관의 공사중지 내용에는 메추계약 당시 존재했던 한국정부와 회사 사이의 "대면"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이 조건 때문에 공사를 중지한다는 것이고, 그 필요성은 자료 (15)와 동일한 다. 그리고 일부들의 행보를 보면 회장인 대합회대장은 부산으로 건너와 중립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세웠다. 부산에서 메추를 지휘하던 도전하준은 당시 일본 정책의 실세였던 조선총독대장이 마다 도움을 청하고, 한국 재정고문이었던 메가다를 만나 설득하였다. 최종적으로
로 고도량과 佐藤潤象이 경성에서 통감부 관료인 충무관관, 농상총장 등을 설득해, 결국 12월 30일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佐藤潤象은 이사관과 대상물자 물색을 위해 밀양 삼양진 동해 등을 답사하기도 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1907년 1월 다시 새로운 매축계약서를 통감부에 제출하고 2기 공사를 시작한다.

자료 (17)은 제2기 공사준공서를 제출하는 내용이다. 1907년 4월 1일 기공해 1908년 8월 31일 준공했는데, 설측도면과 구체적인 평수를 첨부해 최종 보고하고 있다. 총 매축면적 8,602.022평으로 이 가운데 탱지가 6,873.663평이다. 그리고 자료에는 각 위범 면적을 정리해두었다.

한편 육군참모본부는 1909년 9월 고도량 약 2,450평을 군수품과 병력 수송을 전담할 계획을 세우고 배합하였다. 이와 관련한 자료가 (18)이다. 이 자료를 통해서 매축지 일부가 군사적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19)(20)(21)은 경부철도주식회사와 매축 종료 후 일정한 면적을 양도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토지를 인도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자료이다. 이 가운데 (19) 자료는 1900년 경부철도 창립위원장이었던 藤澤義一과 당시 매축허가원을 청취했던 高度量과 佐藤潤象이 계약한 조건에 내도록 하기 부지 4,831.5평과 평당 가격 약 29엔, 총 가격 140,272.94엔인데 매축회사가 받을 대금 가운데 10만원을 미리 차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매축회사가 매축자금을 미리 계약된 경부철도회사로부터 빌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외 계약성향에서도 빌리고 있는데, 매축회사의 자금조달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20)(21)은 매축회사가 매축을 완료하고 경부철도주식회사에 토지를 매도한 뒤 대금을 요구하는 문서이다. (21)에서는 총 요구금액이 126,656.375엔으로 기존 계획보다 약간 줄었음을
확할 수 있다.
이상에서 大倉文庫에 소장되어 있는『釜山埋築會社』차료에서 매
축지 매매, 거류민단과 회사의 갈등, 매축중지와 해결과정 등을 확인
했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대한제국기 부산 북항 매축관련 자료를 검토해 보았다.
일본 외무성외교사료관 소장『釜山海岸埋立工事ノ一件』과 동경경제
대학 소장 『釜山埋築會社』 자료를 소개했다. 전자는 1902년 무렵 매
축관 결정과정이, 후자는 1908년 매축 준공이후 매축지 처리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중심이다. 이 두 자료를 통해 다음 몇 가지 특징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부산 북항 매축권을 획득하는 高島義雄, 佐藤潤之 등이 일본 외무
성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는 점이다. 외무대신과 부산 영사, 서울의
공사가 공문서와 편문을 주고 받으면서 매축권 획득과정에 깊이 개
입하고 있었다. 외무성은 한국정부와의 협상 뿐만 아니라 부산 일본
인 거류지회 경부철도주식회사 발기인 등 이해 당사자들의 협상도
추진했다.
그리고 외무성은 매촉회사의 경제적인 이익까지 지원하였다. 한국
정부가 매축지를 기존 부산 일본인 거류지와 분리된 독립된 조례지
로 조성하려 하자 이중을 일본인 거류지로 전입시키려고 노력하였
다. 이 문제는 일본 외무성으로서도 예민한 문제이기도 했으나, 매촉
회사, 거류지회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었다. 한편 외무
성은 완공된 매출지를 한국정부가 ‘징수·징수’한다는 조건에 반발하면서 적극 대응하였다. 일본 정부는 공공사업용 부지에만 이 조건을 적용하고 그 이외는 사가 매입을 요구했다. 이런 경우 매출회사의 경제적인 손해가 많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준공된 매출지 처리과정에서는 매매방법, 매출지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출회사와 거주민단과의 갈등이다. 거주민단은 매출회사에 복면전에서 매출용으로 체류한 도심비용과 복면전 정비 비용을 요구했다. 또 매출회사에 남세를 요구하는 등 심각한 갈등을 일으켰다. 이런 점은 매출이라는 근대적인 요소가 일본 정부의 공익적인 역할보다 매출회사나 거주민단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우선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釜山海岸埋立工事ノ一件』의 일부

〈자료 1〉
资料2

書

大日
未完

- 254 -
在朝鮮日軍公債

第二外國人関係

在朝鮮日軍公債

- 260 -
[Content of the page is written in Chinese.]

以下是文档内容的自然语言表示：

[Chinese text]

[End of content]
第2 제 釜山居住民권 ① 화이식 상산

① 釜山居住民권 ① 화이식의 상산에

① 釜山居住民권 ① 화이식의 상산에
<table>
<thead>
<tr>
<th>列表标题</th>
<th>列表内容</th>
<th>列表内容</th>
<th>列表内容</th>
<th>列表内容</th>
</tr>
</thead>
<tbody>
<tr>
<td>第一列</td>
<td>第二列</td>
<td>第三列</td>
<td>第四列</td>
<td>第五列</td>
</tr>
<tr>
<td>第二列</td>
<td>第二列</td>
<td>第三列</td>
<td>第四列</td>
<td>第五列</td>
</tr>
<tr>
<td>第三列</td>
<td>第二列</td>
<td>第三列</td>
<td>第四列</td>
<td>第五列</td>
</tr>
<tr>
<td>第四列</td>
<td>第二列</td>
<td>第三列</td>
<td>第四列</td>
<td>第五列</td>
</tr>
<tr>
<td>第五列</td>
<td>第二列</td>
<td>第三列</td>
<td>第四列</td>
<td>第五列</td>
</tr>
</tbody>
</table>

注：此表格仅作为示例，具体内容根据实际文档内容填写。
以下是文档的自然文本表示：

<table>
<thead>
<tr>
<th>1</th>
<th>2</th>
<th>3</th>
<th>4</th>
<th>5</th>
</tr>
</thead>
<tbody>
<tr>
<td>6</td>
<td>7</td>
<td>8</td>
<td>9</td>
<td>10</td>
</tr>
</tbody>
</table>

以下是一个表格示例：

<table>
<thead>
<tr>
<th>名称</th>
<th>数量</th>
<th>价格</th>
</tr>
</thead>
<tbody>
<tr>
<td>项目A</td>
<td>100</td>
<td>50元</td>
</tr>
<tr>
<td>项目B</td>
<td>200</td>
<td>70元</td>
</tr>
<tr>
<td>项目C</td>
<td>150</td>
<td>65元</td>
</tr>
</tbody>
</table>

以上是一个简单的示例，实际内容需要根据具体的文档内容进行调整。
자료 10
第二 造立是以人為本  大事の役を果たし  今後とも頑危的に拠って 育てる 必要がある

第三  今後の研究に際しては  教師の役を全うし  今後とも頑危的に拠って 育てる 必要がある

第四  今後の研究に際しては  教師の役を全うし  今後とも頑危的に拠って 育てる 必要がある
不可忘记

要记住

重要的是

不可忘记

要记住

重要的是
자료 11
[고유한 문서 내용 읽기 문구]
자료 16

금산고개 담방

이사와 동인과

高義

- 277 -
未写
山手の駅で、友人に別れを告げた後、地下鉄を乗り換え、池の端に着いた。

周囲を見渡すと、湖の面積が広がり、遠くの方へと続く木々の影が映りつける。

湖畔に座る人々、彼らの笑顔と交流が心地よく感じられる。
手書きの日本語で、内容は理解が難しいです。
자료 25

[문서 내용]

- 297 -
暂无可读内容
<table>
<thead>
<tr>
<th>列1</th>
<th>列2</th>
<th>列3</th>
</tr>
</thead>
<tbody>
<tr>
<td>项目1</td>
<td>项目2</td>
<td>项目3</td>
</tr>
<tr>
<td>项目4</td>
<td>项目5</td>
<td>项目6</td>
</tr>
<tr>
<td>项目7</td>
<td>项目8</td>
<td>项目9</td>
</tr>
<tr>
<td>项目10</td>
<td>项目11</td>
<td>项目12</td>
</tr>
<tr>
<td>项目13</td>
<td>项目14</td>
<td>项目15</td>
</tr>
<tr>
<td>项目16</td>
<td>项目17</td>
<td>项目18</td>
</tr>
</tbody>
</table>

注：具体数据请根据实际情况填写。
今天天气晴朗，适合外出散步。